

< 서양 현대미술, 아시아를 만나다 >

2. 아시아 문화를 접한 휘슬러와 미국의 화가들

정윤아 (크리스티 스페셜리스트)

초월주의 등 새로운 종교를 통해 아시아 철학을 발견한 미국의 예술가들. 이 가운데 당대 앞선 감각으로 이슈가 되었던 휘슬러를 중심으로 한 일부 미술가들의 예술 세계를 통해 아시아 철학이 어떻게 서구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참고문헌: The Third Mind, American Artists Contemplate Asia pp. 58-86)

1. 주요 배경

- 1)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인 매튜 페리 제독 (Matthew C. Perry, 1794-1858)에 의해 이루어진 미, 일 화친 조약 (1854년)
- 2) 메이지 유신 (1868년): 미, 일 화친 조약을 계기로 왕정 복고 운동이 일어남. 왕권을 회복한 메이지 정권은 근대적 통일 국가 형성을 위해 메이지 유신 단행. 이를 통해 서구에 문호를 개방하며, 자본주의 도입, 군사적 강화 등을 통한 근대화 추진.
- 3) 아시아 자연관을 수용한 초월주의의 영향. 특히 Ralph Waldo Emerson (1803-1882)과 Henry David Thoreau (1817-1862)와 같이 동양의 천지인 사상을 수용하여 자연 속의 삶을 예찬하거나 힌두교와 불교를 적극 소개하는 지식인들의 영향. (힌두교와 불교를 소개하는 다양한 글들이 1844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 소개됨)

2. 서양의 아시아에 대한 이중 감정

- 1) 아시아는 경제적, 정치적 도구화의 대상 (새로운 산업 기지 개발 등). 아시아 문화에서 느끼는 우월감 및 서양인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로움 만끽 등 일종의 현실 도피.
- 2) 아시아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적, 물질적 번영 속에 동반되는 정신적 피폐함에 대한 해결책의 원천. (신비한 경험과 정신적 조화에 대한 탐구 원천)

3. 아시아 문화 예술을 수용한 미국의 예술가들

'예술을 위한 예술' 유타주의운동과 관련된 예술가들이 주로 아시아에 관심. 일상생활 전반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됨.

1) 열반과 부처를 탐구하다

- John La Farge (1835-1910) : 대표작: 예수의 승천(1888)

예수를 둘러싼 신비한 풍경은 서양 미술의 전통과 기독교 교리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영감을 반영한다. 후지산과 서양 풍경의 융합에서 엿보이듯이, La Farge를 비롯한 초기 미국 화가들은 "아시아"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

1856년 파리로 이주하면서부터 일본 장식미술, 불교 만다라, 우키요에 등 수집 시작. 1886년 친구인 Henry Adams와 일본 여행. (각기 다른 이유로 열반의 세계를 찾아서 일본여행을 떠나게 된 것)

일본 여행에서 귀국 후 자신이 많은 영향을 받은 일본의 판화가, Hokusai를 비롯한 일본 예술 및 노장 사상에 대한 다수의 강연 개최

- James A. McNeil Whistler (1834-1903) : 휘슬러는 런던에 기반을 두고 활동. 초기에는 일본과 중국의 도자기, 의상 등 피상적인 모티브 도입하는 등 이국적인 요소를 흥미롭게 가미하는 정도에 그침. 그러나 1870년대 전개된 '야상곡' 연작에서부터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일본적인 구성법, 표현법 등을 도입. 템즈강의 흐릿한 불빛, 수증기, 물, 공간감의 상실, 미묘한 색조 등 우키요에의 영향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보이면서 추상으로 나아감.

2) 유명 컬렉터 Freer와 그가 사랑한 화가들

- Charles Lang Freer (1854-1919) : 미국의 대표적인 컬렉터. 휘슬러와 만난 1890년 이후 아시아 미술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아시아 미학을 표현하는 화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집. 그 대표적인 화가로 Thomas Wilmer Dewing (1851-1938), Abbott Handerson Thayer (1849-1921), Dwight William Tryon (1849-1925) 등이 있음.

- 토마스 윌머 드윙 : 에머슨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음. 비환영적(3차원적)이고, 자연과 사람의 조화에 대한 해석 등에 있어서 아시아 감성에 근접. 특히, 1895년 휘슬러의 작업실에서 에도 시대 병풍을 본 이후에는 일본 병풍에 그림을 그리는 등 보다 직접적인 교류를 시도하게 됨.

- 애보트 핸더슨 테이어 : 아시아 문화, 철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그를 아시아 미학과 철학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자연의 요소 및 주제로 아시아 미학과 관련된 화가로 널리 인식됨. La Farge의 연꽃 그림에서 영향을 받은 습작이라든지 동양의 자연관을 수용한 에머슨 철학의 영향 등이 테이어 회화의 아시아 미학적 배경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음.

- 드왓 윌리엄 트라이언 : 바르비종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화가. 그러나 테이어와 마찬가지로 에머슨 철학 및 아시아 철학의 영향 등으로 인한 자연관으로 인해 아시아 미학을 반영한 화가로 평가됨.

3) 파리에서 아시아 미술을 접한 미국 화가들

파리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면서 파리에서 열린 일본 우키요에 판화전 관람 등을 통해 일본화의 기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회화에 도입하고 자기화 하고자 한 대표적인 미국 화가들로 John Henry Twachtman (1853-1902)와 Mary Cassatt (1844-1926)이 있음.

- 존 헨리 트왈트맨 : 파리에서 체류하던 중 아시아 문화 예술에 접한 그는 특히 아시아 풍경화의 영향을 반영한 자신만의 독특한 풍경화 세계를 구축

- 메리 캐셋 : 파리에서 우키요에 전시를 접하고 이에 큰 영향을 받음. 특히 우키요에가 일상적인 여성의 생활을 다루는 데에 크게 고무됨. 그러나 그녀는 다른 동시대 남성 화가들과 달리 기법을 받아 들이되, 서양 여성의 일상적 삶을 담아냄으로써 자신만의 스타일 구축.